

전남도 중앙공모사업 국비 1조5000억 확보

어촌뉴딜300·도시재생뉴딜사업·농촌 신활력플러스 등 농어촌 경쟁력 끌어 올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전남도가 지난해 확보한 중앙공모사업 국비 총액이 1조5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어촌 어항 현대화 사업인 어촌뉴딜300, 도시재생뉴딜사업, 농촌 활력제고 사업, 스마트팜 혁신벨리, 전기가 플랫폼 구축 사업 등 전남 농어촌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사업들로, 코로나 19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는 25일 "지난해 도·시·군이 참여한 중앙 공모사업에 총 35개 기관 432개 사업이 선정돼 1조5186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선정된 공모사업 국비

규모는 도와 시군에서 총 2조 2988억원(도 1조721억원, 시군 1조 2267억원)으로 집계됐으나 중복 내역을 정리한 결과, 실제 국비 확보액은 1조5186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전남도의 새천년 비전인 '정정 전남 블루이코노미' 실현을 목표로, 도와 시군이 추진중인 공모사업을 분석, 부처 사업별 특화사업을 발굴해 지속적인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됐다.

주요 사업과 국비 확보 규모는 어촌뉴딜 300 2625억원(신안군 외 15개 시군), 도시재생뉴딜 758억원(순천시 외 8개 시군), 농촌 신활력플러스 511억 원(무안군

외 9개 시군) 등이다.

어촌뉴딜300은 어촌 어항 현대화로 주민 삶의 질과 어촌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어촌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며,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원도심 활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이다.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은 향토 자산과 민간조직을 이용해 특화산업을 고도화해 지역 자립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광양 매실, 고흥 유자 산업 육성 및 나주 상생푸드 선순환체계 구축 사업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단일 시군 사업으로는 스마트팜 혁신벨리 589억 원(고흥군), 초소형 전기가 및 전기 자동차 플랫폼 구축 483억 원(영광군), 지능형 저압전류 핵심기술 및 수소생산 저장활용기술개발 실증 418억 원(나주시) 등이 선정됐다.

스마트팜 혁신벨리 사업은 농업분야 창업보육과 생산유통, 기술혁신 기능을 갖춘 단지를 조성해 미래농업을 선도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청년보육센터, 실습농장, 임대형 스마트팜, 실증단지, 지원센터, 주민참여단지 등이 들어선다.

이 사업들은 전남도가 3대 중점 대응 분야로 선정해 집중 공략중인 정정 전남 블루이코노미, 지역밀착형 생활 SOC, 수소경제 산업과 연계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보탬이 될 것으로 전남도는 기대했다.

한편 전남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정부 부처 사업 설명회와 워크숍 등이 취소되는 상황에서 정보부족 등으로 내년도 공모사업 적기 대응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온라인 확보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총선 라운지

여성 안전사회 폭력 근절 대책 발표

민생당 장병완 동남갑 예비후보

민생당 장병완 의원 광주 동남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25일 '여성 안전사회를 위한 여성폭력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장 예비후보는 "최근 n번방 사건 등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국민의 분노와 강력한 처벌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불법 성착취 동영상 등 디지털성범죄, 특히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근절하도록 강력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 "변형가짜뉴스를 통한 불법촬영 방지대책부터 디지털성범죄의 처벌과 피해자 보호까지 디지털성범죄에서 여성과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근본적이고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송갑석, 광주 서구갑 출마 공식 선언

"문재인 정부 성공 이룰 것"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인 송갑석 국회의원이 25일 제21대 총선 광주 서구갑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송 의원은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에 동참하는 취지로 출마 선언을 보도자료로 대체했다.

송 의원은 출마 선언문에서 "술한 시



련과 실패 속에서도 시대의 요구와 양심의 소리를 따라왔고, 언제나 광주와 함께 광주를 지키며 살아왔다"며 "민주주의를 위해 한 길을 걸었던 열정으로 정의롭고 당당하게,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광주의 발전을 이룩하겠다"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

코로나 민생센터 개소...맞춤형 대책 추진

정의당 윤소하 목포 예비후보

정의당 윤소하 목포시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25일 "최근 목포에서 2명의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발생한 일을 계기로 목포에 '코로나19 민생센터'를 열었으며, 매일 회의를 열고 맞춤형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예비후보 측은 윤 의원과 보좌진, 이보라미 정의당 전남도당 위원장(현 전남도의원), 백동규 목포시당 위원장(목포시의원)으로 구성됐다고 전했다.



이들은 첫 회의에서 목포 확진환자의 감염 경로와 동선을 파악, 이를 시민에게 알리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상정했다. 윤 예비후보는 "3월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 경영 예산이 결정돼 코로나19 민생대책이 발표되고 있지만, 이를 정확히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민생대책을 시민들께 제대로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

"내년 농업예산, 국가 예산의 5%는 돼야"

민생당 운영일 예비후보

민생당 운영일 해남·완도·진도 국회의원의 예비후보는 25일 "국민 건강과 먹거리 안전 강화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농업 예산을 5%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생당 현역의원인 윤 예비후보는 이날 자료를 내고 "코로나 19로 세출이 증가하고, 세입이 감소됨에 따라 내년도 예산 삭감 움직임이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의 농업 예산 비중은 2014년 전체 예산의 3.83%에서 2017



년 3.62%, 2020년 3.08%로 매년 축소가 되풀이 되는 현상이 우려스럽다"고 언급했다.

윤 예비후보는 이어 "코로나 19 대응 추경에서 그 피해가 심각한 농업분야 예산은 또 소외됐다"면서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결정에 따른 농업 피해를 고려한다면 내년도 예산은 삭감이 아니라 증액이 정당"이라고 강조했다.

/김형호 기자 khh@

전남도 코로나 피해 농가 경영자금 79억 용자

농가당 최대 5000만원

전남도는 25일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총 79억원의 재해대책경영자금을 용자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농업인(가족 포함)이 '코로나19' 감염 확진 또는 의심으로 격리돼 정상적인 영농활동이 어렵거나, 내·외국인 등 농작업에 필요한 보조인력 구난난 등을 겪는 농가다.

지원한도는 농가당 경영비를 기준으로

최대 5000만원이다.

대출조건은 고정금리 1.8% 또는 변동금리(3월 기준 1.21%, 6개월 변동)가 적용되며 기간은 1년이다. 대출기간은 일반농가는 1년, 과수농가는 3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희망 농가는 관할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담당자 확인을 거쳐 지역 농협에 신청하면 된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3월에 등장한 구세군 자선냄비

마스크를 착용한 시민이 25일 광주시 동구 총창로우체국앞에 설치된 구세군 마스크 기부 자선냄비에 성금을 기부하고 있다. 구세군의 마스크 기부 캠페인 '내 마음을 담다'는 오는 31일까지 진행되며 환경미화원과 버스기사, 경비원 등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3월에 등장한 구세군 자선냄비 마스크를 착용한 시민이 25일 광주시 동구 총창로우체국앞에 설치된 구세군 마스크 기부 자선냄비에 성금을 기부하고 있다. 구세군의 마스크 기부 캠페인 '내 마음을 담다'는 오는 31일까지 진행되며 환경미화원과 버스기사, 경비원 등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전남도 택시운전기사 6800명에 50만원씩 준다

다음달 상품권으로 지급

생활비와 별개 생계안전 우선

전남도내 택시운전기사 6800여명에게 1인당 50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이 4월 중 지급된다. 코로나 19로 생계를 위협 받는데다, 공과금 지원 등 소상공인 지원책 수혜 대상자가 아닌란 점이 고려된 조치다.

전남도는 25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택시 운수종사자들을 위해 도비 35억 원을 긴급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자는 개인·법인 택시운전기사 6800여명이다.

이번 지원은 전남도가 취약계층 등에게 지원키로 한 긴급 생활비(30~50만원)와 별개로, 승객수가 줄어 수입이 감소해 어려움을 겪는 택시 운수종사자의 생계안정

을 우선적으로 돕기 위해 마련했다. 추경안 의결 등 절차를 거쳐 4월 중 택시운전기사 1인당 50만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된다.

전남도는 그동안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버스·택시업계에 마스크 3만 개를 긴급 지원했으며, 지난해 버스업계 적자노선 재정지원금 136억원도 신속히 집행했다.

또 해당 사업의 재원인 행정안전부 보통교부세가 확정됨에 따라 127억 원의 예산을 추가 편성해 즉시 지급할 방침이다.

전남도는 앞으로도 택시와 버스 등 운송업체 및 종사자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특별생계지원을 지원키로 하고 이를 위해 우선 국비지원을 요청했으며, 필요한 경우 2차 추경도 추진키로 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아직도 묘지를 선호하십니까?

자연장의 장점

- 매장이나 봉안에 비해 비용이 매우 저렴합니다.
- 관리가 편하며 반영구적입니다.
- 생활공간과 가깝습니다.
- 국토를 효율적 활용 자연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전국 3대 명당으로 꼽히는 보성을 아십니까?
그 곳에 수목장이 새롭게 오픈했습니다.
이장부터 안치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잊혀지지 마세요.
잊지마세요.
자연에서 기억하세요.
사람은 원래 자연입니다.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새로운 장묘문화입니다

보성수목장

보성군 노동면 소재

수목장 * 자연장

화장한 후 잔디나 화초, 나무 밑에 유골을 묻어
고인을 자연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아름다운 장묘문화입니다.

061)322-6183